2025.05.26.

KiRi 리포트

IFRS17과 보험계리사 시험

| 이슈 분석 |

노건엽 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

요 약

국내 보험계리사 시험은 IFRS17, K-ICS 등 보험계리 및 건전성제도 변화 등에 발맞춰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제도를 개선함. 제도 개선으로 인해 합격자 수는 증가하여 인력은 확대되었으나 IFRS17, K-ICS와 연관된 문항이 많지 않아 실무 적응 및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차 시험과목(계리리스크관리 등)의 실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합격 이후에는 체계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계리사 제도는 1981년 도입 이후, 보험계리분야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계리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국내 보험산업이 세계 7위의 규모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보험계리사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2천여 명 이상의 보험계리사가 배출되었는바, 이들 보험계리사는 보험회사의 부채평가, 리스크관리, 상품개발 등 보험계리 분야의 핵심 업무를 담당함[1)]
- IFRS17의 본격 시행과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기반한 K-ICS 제도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보험금 지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가정(위험률, 할인율, 사업비 등)의 설정과 보험계약부채의 산정 및 검증이 한층 더 중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보험계리사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짐
  - 이와 같이 보험계리분야 제도의 큰 변화가 시행되면서 보험계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리사 시험 제도는 IFRS17 시행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과목합격제, 절대평가제 등 전문성을 강화한 제도가 2013년에 도입됨

- 2013년 4월, 감독당국은 IFRS17 도입에 따라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보험계리사를 양성하고자 시험과목 변경, 과목합격제, 절대평가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2)]
  - 시험제도는 1차와 2차로 구분되는데 2차 시험과목은 ① 보험이론 및 실무, ② 회계학, ③ 보험수리의 총 3과목에서 ① 계리리스크관리, ② 보험수리학, ③ 연금수리학, ④ 계리모형론, ⑤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총 5과목으로 확대됨
  - 2차 시험은 1차 시험을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과목별 부분합격이 가능하며, 합격자 결정방법은 2차 시험 5과목을 모두 60점 이상 득점해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이후 안정적인 보험계리사 인력 공급을 위해 '합격점수 인정기간 과목별 확대', '최소 합격 예정 인원 마련' 등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험계리사 시험 제도를 개선함

1) 보험계리사법안(2023. 11. 9.)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4. 26.), "2014년부터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이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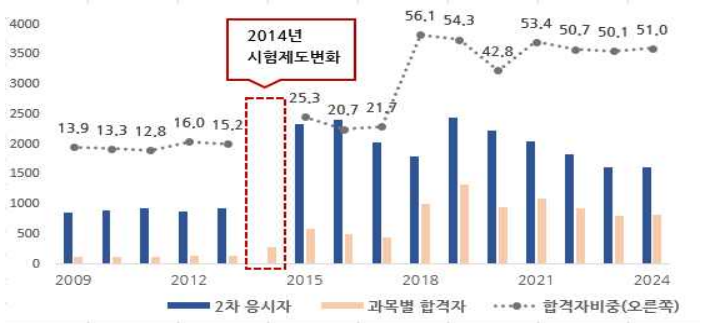
- 2018년에는 양질의 인력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전문성 있는 보험계리사가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 보험계리업무 경력인정기관 추가 등 시험 제도를 개선함[3)]
  - 2차 시험에서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 시 향후 동일한 점수 인정 기간을 전체 5년에서 과목별 5년으로 확대함
  - 관련 전문 경험이 있는 인재를 유입하고자 1차 시험의 면제가 가능한 경력인정기관에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추가함[4)]
- 또한 2019년은 과목별 최소합격 예정인원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2차 시험에 있어 과목당 최소합격인원을 정해두는 경우 60점을 넘지 못한 응시자도 최소합격인원 내에 포함된다면 당해연도에 한해 합격자로 인정함[5)]
- 2021년에는 보험계리사 1차 시험 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함[6)]
  -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를 토익, 토플, 텝스에서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도 추가함
- 2025년은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따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삭제함[7)]

○ **인력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이후 합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최종 합격자의 연령층도 40대 이상으로 다양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시험제도 변화 후 2015~2018년은 과목별 합격자가 20% 수준이었으나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2018년부터 과목별 합격자가 50% 이상 증가함(〈그림 1〉 참조)
  - 이로 인해 최종 합격자수도 2015년 25명에서 2023년 16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24년은 126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과목별 합격률은 전년도와 유사(50.1% → 51.0%)함(〈그림 2〉 참조)
- 합격자 연령대는 30세 이하가 가장 많으나 제도 개선 및 현업 응시자의 합격자 수 증가로 인해 31세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21년도부터는 41세 이상도 발생하고 있어 연령층이 다양화되고 있음(〈그림 3〉 참조)

〈그림 1〉 시험제도 변화 전후 2차 시험 합격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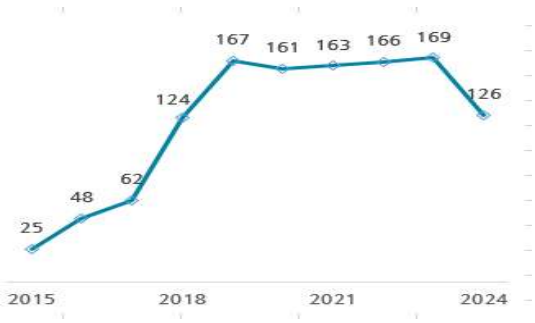
(단위: 명, %)



주: 2014년 이후부터는 2차 시험 응시자의 과목별 (중복) 합격률을 발표하고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각 연도

〈그림 2〉 최종 합격자 수 추이

(단위: 명)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각 연도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5. 3.),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시행"
4) 종전에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한해 5년 이상 계리업무에 종사해야 1차 시험이 면제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1차 시험 면제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에 추가함
5)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 2(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9. 1.),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7)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과목 등); 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면제) 〈개정 2025. 2. 18.〉

〈그림 3〉 보험계리사 최종 합격자 연령별 추이

(단위: 명)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각 연도

○ **시험 제도 개선으로 인해 합격자 수가 증가하여 인력은 확대되었으나 IFRS17, K-ICS 등 변화된 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험문항의 출제 빈도 및 문항 수가 많지 않아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계리리스크관리'에서 IFRS17 및 K-ICS와 직접 연관된 문항이 11년간 3문항만 출제되었으며 전체 문항 수도 6문항에서 4문항으로 점차 감소하여 실무에 필요한 지식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부록〉 참조)
  - 보험료 및 상품, 재보험 등 기존 제도에 대한 출제 비중이 높고 새롭게 도입된 IFRS17, K-ICS 등에 대한 출제 비중이 낮으며 출제가 된 문항도 기초적인 지식을 묻는 것으로 실무와의 연관성이 높지 않음
  - 최근 11년간 '계리리스크관리'에서 출제된 56문항 중 IFRS17 및 K-ICS와 직접 관련된 문항은 3문항으로 전체의 5%(3문항/56문항)에 불과하여 IFRS17 시행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다른 시험과목인 '보험수리학'이 2018년부터 IFRS17 부채평가 계산문항을 출제하여 보완함[8)]
  - 주로 3년 만기 보험에 대해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을 이용하여 보험계약부채를 계산함

○ **보험계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리리스크관리' 등 2차 시험과목의 실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합격 이후에는 체계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에 평균 약 6~10년이 소요되는데 이는 두 과목에 합격한 후 보험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머지 과목을 합격하여 최종적으로 보험계리사로서 인정받게 됨[9)]
- 해외사례처럼 보험계리사 시험과 실무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험계리사 합격자가 현업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계리사 시험 출제범위와 출제비중에 IFRS17, K-ICS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보험계리사회 등을 통해 보수 교육을 강화하여 보험계리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함

8) 제41회(2018년도 시행)·제42회(2019년도 시행)·제44회(2021년도 시행)·제46회(2023년도 시행)·제47회(2024년도 시행)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 [보험수리학]

9) Be An Actuary 홈페이지(https://www.beanactuary.org/what-is-an-actuary/fast-facts-about-actuaries/)

부록. 「계리리스크관리」 시험 연도별 문항 현황(2014~2024년)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문항 수	6	6	6	6	5	5
IFRS17	-	• IFRS4 2단계 영향	-	-	-	-
재무 및 리스크	• 내재가치 • 손익 및 리스크 • 대체리스크전가	• 장수리스크와 장기간병보험 리스크 • 합산비율	• 부채듀레이션 • 부채적정성평가	• 신종자본증권 • 자동차보험 추산 보험금	• 손익분석 •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 • 보험연계증권	• 전사적 리스크관리
보험료 및 상품	• 보험료 산정방식 비교(3이원과 현금흐름) • 자동차 보험료(사고빈도)	• 보험요율 산출원칙 • 간편심사상품	• 실손의료보험 • 자동차보험 • 경미손해 보상제한 방법	• 보험요율 구분요소 • 화재보험(보험료 및 보험금)	• 요율산정방식 • 실손보상원칙	• 사업비(선취 및 후취 방식 비교) • 실손의료보험 • 화재보험 보험료
재보험	-	• 초과액 재보험특약	-	• 금융재보험	-	-
기타	• 정보비대칭	-	• 보험사기	• 가격경쟁	-	• 퇴직연금(기금형과 계약형 비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
문항 수	5	5	4	4	4	
IFRS17	-	-	-	• 보험부채평가방식 비교(IFRS17, K-ICS)	-	
재무 및 리스크	-	• 후순위채권	• 자산재평가 • 기후리스크	-	• K-ICS 요구자본	
보험료 및 상품	• 보험료 불가분원칙 • 암보험(요양병원 입원비) • 외화보험	• 실손의료보험 • 무저해지보험 • 영업중단손실보장보험	-	• 보험료 산정방식 비교(3이원과 현금흐름) • 공동보험, 보험공제 및 지급한도	• 파라메트릭 보험	
재보험	• 초과액 재보험특약	-	• 재보험시장	• 재보험 방식 비교(비례, 초과손해율, 초과손해액)	-	
기타	• 기대효용이론	• 보험소비자 보호(금융소비자보험법)	• 인플레이션 영향	-	• 보험사기 • 기대효용이론	

자료: "연도별 계리리스크관리 시험 기출문제"를 저자가 정리함